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성경: 이사야 9장 1-7절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걸옷이 불에 셜 같이 살라지리니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9:1-7)

우리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열심이 특심하시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열심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며, 완전한 주권을 차지하실 것이다.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부정과 부패가 사라진 세상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것이다.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방 사람들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했던 땅이다. 예루살렘과 비교한다면 갈릴리는 멸시를 당하는 땅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났고,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비로소 이루어졌다.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
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명백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정의의 실현과 관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끌어 버리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그 날을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4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명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
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걸옷이 불에 셜 같이
살라지리니

미디안의 날이란, 기드온의 승리의 날을 뜻한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차지하였다. 미디안의 날에 기드온이 행한 일이라고는 고작 항아리를 깨뜨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하고 외쳤던 것 밖에는 없었다.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들의 꿈 속에 패배를 심어 주었고, 자기들끼리 치고박고 싸우도 멸망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버리고 도망간 물건을 노략하게 되었다.

5절은 싸우기 좋아하는 침략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의 남은 전쟁이 이와 같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 노략물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자들이 먼저 차지하게 될 것을 믿는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당시의 가장 큰 적 아람군대를 대적한 선지자다.

그는 한사람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였다.

적군의 군대장관 나야만은 엘리사에게 병 고침을 받은 후 결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엘리사 생전에 아람군대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한 평화가 보장되는 통치이다.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는 특히 올해 성탄을 기념하면서 이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기도가 엘리사의 기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9:1-7)

하나님이 열심이 한국의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이땅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앞당기실 것을 소망하자! 아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1000년 대계를 위한 신양을 세우자!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